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5~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대승기신론해동소혈맥기(1)	원효/공파스님 역해	운주사
3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4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5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맛지마니까야(3)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디가니까야(1)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책세상

〈금강경〉 가르침, 현대적 언어로 다시 태어나다



금강경 삼가해 강설을 논강하다
무각 강설
한국선불교연구회 논강
불광 펴냄/2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강경〉은 대승불교와 한국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디선가는 들어 봤을 공(空), 보살(菩薩),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같은 개념들이 바로 〈금강경〉에서 다루어진다.

"응당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 而生其心)"와 같은 유명 구절도 이 경전에 나온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금강경〉이 펼쳐 보이는 공(空)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분별과 언어로는 파악하기도 그려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 하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와 같이 일견 모순돼 보이는 가르침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도 〈금강경〉이 갖는 이러한 성격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선지식들이 〈금강경〉에 대한 해석을 남겨왔다.

〈금강경〉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서로는 〈금강경오가해〉가 단연 손꼽힌다. 〈금강경오가해〉는 〈금강경〉에 대한 부대사(傅大士)의 찬(贊), 육조(六祖)의 구결(口訣), 규봉(圭峯)의 찬요(纂要), 야부(冶父)의 송(頌), 종경(宗鏡)의 제강(提綱)을 모은 것이다. 〈금강경삼가해〉는 이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육조와 야부와 종경의 글을 뽑고, 거기에 조선 초기 고승인 함허의 해설을 더해 엮은 책이다.

수행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며, 바른 안목이 서게 되면 반드시 체험해 견성할 수 있다. 무각 스님을 비롯 원철 스님, 성진 스님 등 불교계의 중진스님들이 참여하는 한국선불교연구회는 〈금강경〉을 함께 참구하며, 그 바른 면목을 찾아내고자 했다. 먼저 〈금강경삼가해〉에 대한 무각 스님의 강설이 일년 넘게 진행되었고, 이 강설 내용은 여러 차례

> **〈금강경삼가해〉는 〈오가해〉 가운데 육조와 야부와 종경의 글을 뽑고, 조선 초기 고승 함허의 해설을 더해 엮은 책**

에 걸친 한국선불교연구회 워크숍에서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졌다. 이 과정을 통해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 〈금강경〉에 대한 선지식들의 해석 한 마디 한 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가 선불교 관점에서 현대적인 언어와 의미로 풀어내어졌다.

이 책은 〈금강경삼가해〉와 함께한 이 치열한 여정의 결과물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너무도 심오하기에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금강경〉 가르침이, 수행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바른 면목'이 비로소 이 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와 닿는 생생한 가르침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책은 〈금강경〉이 품은 빛나는 금강의 세계,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별적 집착에서 벗어난 대자유의 세계로 가는 길을 여실하게 펼쳐 보인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성인의 법문은 일체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며 깨달음의 세계를 곧장 열어 보여 주시는 법의 문이다. 논리나 이론이나 체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체험해 확인하고 증득하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다"며 "그러나 논리와 이론과 체계는 진리를 깨달아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며 수단이므로 또한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고 참구하게 되면 정견이 서고 믿음이 성취되어 반드시 견성체험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저자 무각 스님은?

고우 무비 지안 통광 설우 혜거 스님 등이 참여한 '경전연구회'를 10년 넘게 이끌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생선원 선원장으로 〈임제록〉 〈돈오입도요문론〉 〈선문촬요〉 〈선요〉 〈선가귀감〉 등의 선어록과 〈금강경오가해〉 〈화엄경〉 〈능엄경〉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그대 삶이 경전이다〉와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가 있다.

▲한국선불교연구회는?

경전 연구와 수행풍토 진작에 뜻을 두고 결성된 공부 모임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원철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을 역임한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 관음정사 주지 정담 스님, 관음사 주지 청오 스님, 봉은사 포교국장 석두 스님, 능휴 스님, 청여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염불자들 삶의 애환과 미래 희망 담긴 감동적 지침서



극락으로 가는 염불
현견보영 스님 지음
불교시대사 펴냄
1만 7500원

불교인이라면 염불은 기본으로 하는 수행이다. 염불은 사찰에 가면 아침저녁으로 목탁소리와 염불소리를 듣게 된다. 종송을 시작으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대중들이 모여 합창하듯이 염불 한다. 이런 염불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을 찾게 해 준다.

이 책은 일본의 신란 스님이 설하신 내용을 제자 유이엔 스님이 집필한 글 〈탄이초〉를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한국불교는 선 수행으로 단박에 깨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본 불교는 염불수행 하여 다음 생에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는 발원으로 염불을 한다. 〈탄이초〉에는 염불자들에게 그러한 그네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그대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있다.

실천적 염불을 행한 많은 선인(先人)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현재의 염불자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신앙심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이 〈탄이초〉는 결론적으로 염불자들의 삶의 애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감동적 지침서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만큼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는 의미다.

염불하는 염불자들은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찾는다.

염불은 어떤 대상 즉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을 집중해 부름으로 정신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그 세계에 안착할

> **이 책은 일본 신란 스님이 설한 내용을 제자 유이엔 스님이 집필한 글 〈탄이초〉를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것**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겨 믿음이 돈독해지고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믿음으로 염불 한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생각 차이로 성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성인 말씀의 힘을 빌려 행복을 찾고자 함이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다. 팍팍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종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은 이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 염불의 힘을 빌려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 보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탄이초〉의 구성은 소가료진(曾我量深) 선생에 의하면 첫 번 제 1조서 제 10조까지는 신란의 설교에 대한 염불자들의 진의 위반에 대한 것이고, 제 11조부터 제 18조까지가 이의(異議)의 조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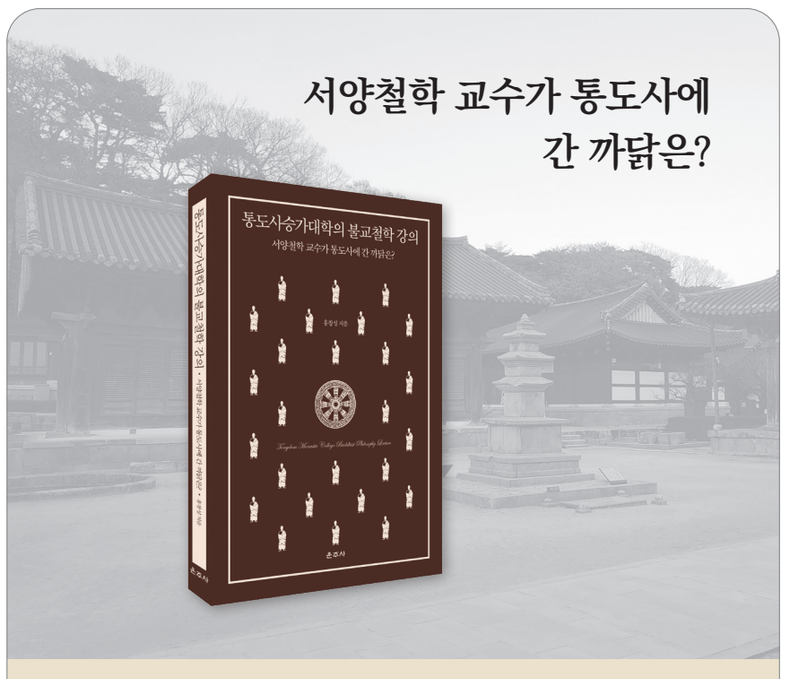
이어 후서에서는 신심 논쟁으로 규정하였다. 이 모든 논쟁이 있는 것은 본원에 대한 진실한 신심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신란의 술회를 서술했다고 보고, 세 번째는 본원의 가르침에서는 선과 악이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열반하신 신란 대사가 말씀 하신 지극히 적은 분량의 말씀만을 생각해내어, 여기에 적어 놓고 염불자가 진실의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변지 방편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만은 있어서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보영 스님은?

1982년 득도했다. 大谷(오오타니)전수학원(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立命館大學(리츠메이칸)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석사, 서울사이버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위덕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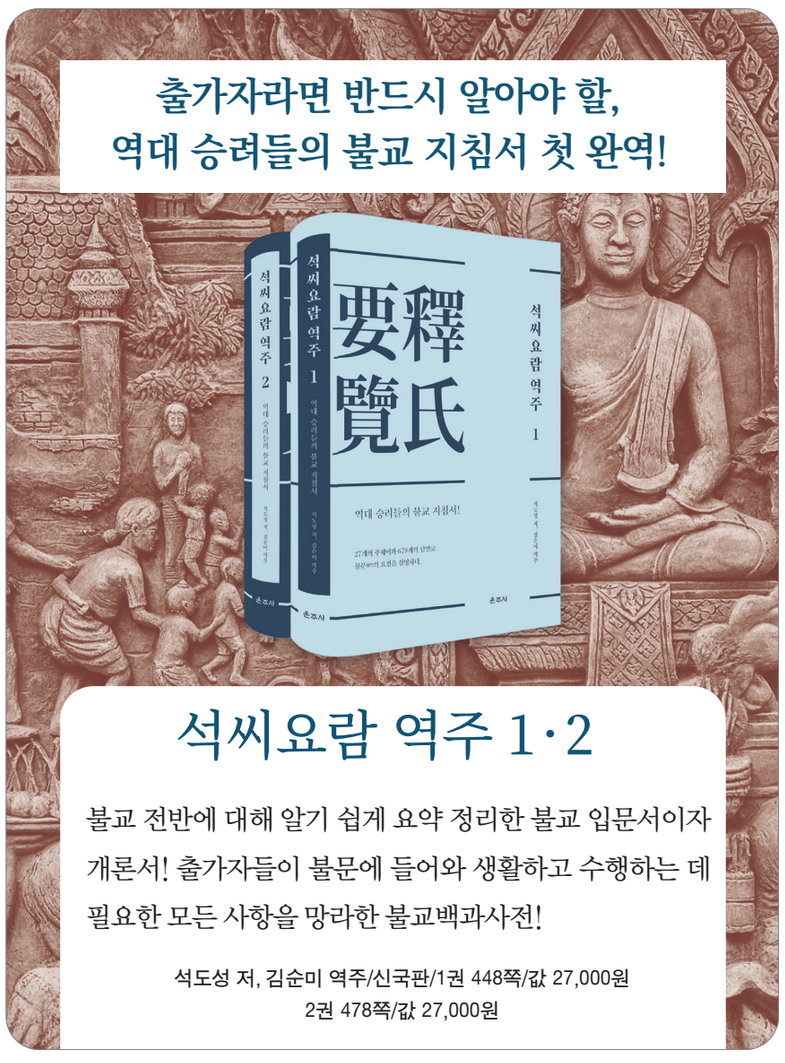
저서로는 〈봄날의 축제〉 〈내 생을 찾아서〉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탄이초의 악인정기설 연구〉 〈탄이초에 나타난 악인정기설의 선악관 연구〉 등이 있다. 현재는 염불공덕회 대표를 맡고 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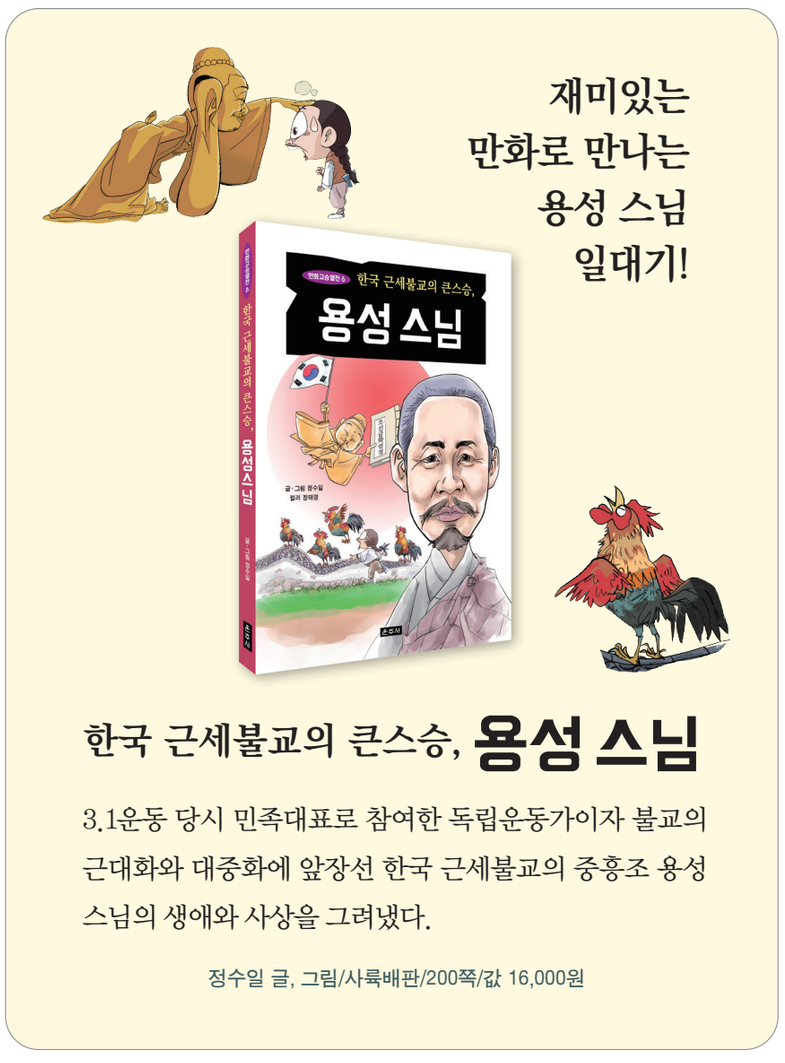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